



아~아 잊으랴 어찌 우리 그 날을~

홍수가 남기고 간

섬진강의 상흔 傷痕?



대한민국문와유산 5대강은 한강, 섬진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이다
강유역마다 환경청이 설립되어 강물을 통제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 최초의 다목적댐인 섬진강유역환경청은 따로 설립되지 않았는가?



연래 섬진강 홍수통제소는 1990년부터 개소 운영되어 오다가
2005년 영산강 홍수통제소로 통합됐다.

왜? 섬진강댐 물관리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맡겨야만 하는가?
섬진강댐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댐인가?



섬진강물은 섬진강 유역에 사는 사람들의 생명줄이다
섬진강이 살아야 섬진강유역 사람들이 산다.



섬진강유역환경청의 설립은
섬진강유역에 뿌리내려 살아왔고 살아갈 모든 이의 염원이다
섬진강 홍수통제소 따로 운영해야 한다



섬진강은 알고 있다
그러나 섬진강은 말이없다
섬진강아 말해다오.



다시는 다시는.....
섬진강 중하류 지역에 사는 소중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우리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다시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절대로 안돼, 안돼.....!
섬진강댐 물관리 통제 실패의 난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섬진강유역환경청의 설립은 절실하다.

- 든든한 섬진강 든든한 섬진강변 사람들 -



곡성군수 유경기

우리 고유의 색을 찾아 성장 발전하는 대체 불가능한 희망 곡성을 만듭시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2021년 신축년 새날이 밝았습니다.

지난 1년, 수많은 다짐과 희망을 속으로만 품어왔던 만큼 올해는 어느 때보다 높은 기대감으로 새해를 맞이하였을 것입니다. 얼마 전부터 백신이 속속 개발되며 많은 나라들이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역성장 속에서도 방역과 경제 모두 선방했습니다. 의견이 달라서 얼굴을 붉히다가도 큰 위기에는 풀릴 땀 흘릴 줄 아는 우리 민족 특유의 성품이 빛을 발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 역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반등의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교육, 문화, 농업, 관광 등 핵심 분야에서 우리 고유의 색을 찾아냈다는 것이 큰 성과입니다. 그리고 이를 시스템화함으로써 연속성 있게 발전할 수 있는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날들이 더욱 희망적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해 105곳의 시군구를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했습니다. 전체 기초 지자체의 절반가량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우리 군도 지금 50대 50의 경계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내딛는 10년간의 발걸음이 소멸인지 번영인지를 결정하는 방향타가 될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성의 표준이 전국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군이 '어디 여도 상관없는 곳 중의 하나'가 된다면 누구도 매력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대체 불가능한 곡성'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올해를 건강하고 인구 구조로의 출몰을 위한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이를 위해 아이들과 청년 중심의 정책을 강화해

보다 젊고 활력 있는 곡성으로 만들겠습니다. 여기에 다채로운 문화를 더해 지역의 수용성과 창의성을 끌어올림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의 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곡성형 창의교육의 폭을 넓히고, 콘텐츠의 수준을 높여 '배움 중심 사회'를 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사람과 미래를 잇는 즐거운 교육도시'라는 비전으로 곡성미래교육재단이 정식 출범했습니다. 올해는 학부모, 마을 활동가, 청년 등이 함께 중장기 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해 자연, 생태, 문화, 역사 등 다양한 교육자원을 학교혁신과 마을교육, 곡성꿈돌자, 농촌유학 등으로 체계화하겠습니다. 진로직업체험관은 창의교육 플랫폼으로, 가족체류형 농촌유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리더스아카데미의 전문성 제고로 1인 1배움 시대를 열겠습니다.

둘째, 3개 권역을 교통망과 통신망으로 묶어 모든 지역이 중심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곡성읍권은 관광객을 시가지로 유입시키고 우리 군에 머무르는 사람을 증가시키는 체류형·복합형 공간 조성이 목표입니다. 지역성장 전략 사업인 '스테이션1928'은 관계인구 유입을 위한 숙박과 커뮤니티 공간 조성, 세대 유형에 맞는 주거 공간 마련, 곡성 실아보기 '침춘작당'과 가족체험형 농촌유학 참여자 모뎀주택 마련, 청년들이 마음껏 창업에 도전하고 일할 수 있는 공유오피스와 소통공간으로 활용될 '비밀언덕25', '6070침춘공작소'를 조성하겠습니다.

읍곡권은 미래산업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반을 조성해 경제거점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전남과학대학교 청년농부 인큐베이팅 허브센터의 도시 청년 맞춤형 귀농 서비스 제공, 스마트팜, 드론 기반 유통물질 관리 및 방제 실무 교육, 산

업용고압직류기시험센터의 태양광 발전, 전기 자동차의 미래산업들과 연계방안, 운곡특화농공단지 조성, 관음사 대웅전 복원, 설산산성 문화재 지정 추진 등 옥과권 문화유적을 되살리는 계획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석곡권은 전국 면 단위 최초로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석곡에서 살면 돼지 reborn 1973'은 13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24년까지 진행됩니다. 대황강변 자연생태 체험관광지 사업을 통해 생태관찰로와 스카िका벤 등 독특한 숙박공간 조성, 대황강변 아간경관 조성사업을 더하여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넷째, 총출한 복지전달체계로 소외 없는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를 돌봄 사각지대 해소,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만12세 이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20% 확대, 두 자녀부터 전액 지원, 신생아 양육 지원금에 추가금을 더해 지원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안심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1,941가구 제공, 맞춤형 안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유형별 안전시스템 강화, 치매안심센터의 조기검진 기능 강화, 치매안심마을과 꾸러미 사업, 기존 화재보험과 상해보험 클린서비스 사업으로 위생적인 생활환경 제공, 쾌적한 공중목욕장 운영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감성과 여유, 자연, 사람, 마을이 어우러지는 여행 콘텐츠 강화, 섬진강기차마을 증기기관 플랫폼 구축, 장미정원 경쟁력 강화, 동물농장의 교감형 체험 공간 조성, 증기기관차 특화 정차역 4곳 조성, 압록유원지 상상스쿨 재생, 가평역 문화공간 곡성 아트빌리지 놀이터와 각종 편의시설, 인근 마을 스트리트 아트 등 감성적

관광 명소화, 산림레포츠길 1박 2일 자전거 여행, 섬진강천문대 아간여행, 국도 18호선 아간경관 조망지점 조성하여 생태여행을 밤낮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속가능한 특화농업 육성을 위해 기후변화 대비 농업의 공익적 가치 강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과 친환경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으로 곡성 디톡스 테라피 융복합산업 시스템 구축, 70억 원 규모 해독·치유 거점센터 구축, 가공식품과 테라피 체험관광 상품 개발, 청년창업농장 확대, 귀농귀촌인 농업 인력육성 지원,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시스템 운영, 곡성토란의 품질기준 마련과 대표 품종 선별, 기능성 소재 연구개발, 지리적표시포장재 지원, 가공업체 물류표준화 장비 구축, 곡성멜론 지리적표시 및 가공제품 개발, 멜론마을 복합체험시설 조성으로 새로운 판로와 사업 다각화를 실현하겠습니다.

여섯째, 지역균형 뉴딜 전략에 맞는 미래형 청정곡성을 만들기 위해 동약산 생태축 복원, 섬진강 침실습지 복원, 전망대, 관찰 탐방로 조성, 스마트그린도시 사업, 반구점 습지와 석곡면 시가지를 잇는 100억 원 규모 사업 추진, 10개년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75억 원), 동화정원 녹색쌈지 숲, 검면 농공단지 미세먼지 차단숲 등 녹색공간 조성, 섬진강과 보성강 국가하천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구축, 재해 사전예방 소화천 정비사업 추진, 230억 원 규모의 석곡지구 다목적 용수개발사업, 곡성군 청사 건립사업을 착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끝으로 2021년 신축년은 지난해 미뤄야 했던 소망들까지 한꺼번에 누리는 반전의 새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항상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상호 신뢰와 협력의 거버넌스를 공고히 구축하는 곡성군의회를 만듭시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불면하고 힘든 상황을 인내해 주시며 방역에 열심히 동참해주시고 내 이웃과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주신 군민 여러분과 방역당국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신축년(辛丑年) 새해는 '흰 소'의 해입니다. 예로부터 흰 소는 근면과 신의, 인내와 정직의 상징이었습니다. 대흥사 대웅전에 그려진 벽화 '십우도(十牛圖)'에서처럼 불가(佛家)에서도 끊임없는 수행을 통해 얻는 성찰의 의미로 상징되었고, 흥년으로 갖기 말라도 외양간에 여물들은 채워놓았던 우리 민족에게 소는 더욱 각별합니다. 끝나지 않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흰 소가 우리에게 주는 긍정과 희망의 메시지를 아로새기며 새롭게 떠오른 새해를 맞이하였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제8대 곡성군의회는 코로나19와 8월 수해로 상심이 큰 군민께 힘이 되고자 모든 역량을 총동원했습니다. 유례없던 긴급 지원 추경예산을 위해 임시회를 긴급 소집하여 예산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민생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고 잘못된 거나 부당한 제도와 정책들을 고치고 개선해야 하는 의회의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유독 어렵고 힘든 시절을 보냈지만 지난 한 해 동안 곡성군의회에 따듯한 격려와 변함없는 성원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을 상징하는 사자성은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라는 뜻으로 '아사타비(我是非非)'가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코로나19 속에서 한국 사회의 계층, 성별, 연령 등의 차이에서 오는

많은 갈등과 반목을 고집고 경계하지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곡성군에서도 이해관계에 따른 반목으로 민원과 갈등이 빈번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행정적, 물질적,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인류는 공생과 공존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뢰와 협력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모두가 빠짐없이 서로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로 도울 때 더 강해질 수 있는 것이며 반드시 그렇게 해야 생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올해에도 우리 군은 많은 도전과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의 충격 파는 눈사태처럼 소리 없이 우리를 덮쳐올 것이고 해마다 눈에 띄게 줄어드는 인구에 의해 지역의 성장 동력은 계속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칠혹 같은 망명대해 위에서 항해하느냐 표류하느냐의 차이는 나침반과 별자리를 보는 안목, 나아가는 목표의 유무에 의해 결정됩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격변의 시대를 준비하며 상호 신뢰와 협력의 거버넌스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고 다가오는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한 올바른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곡성군의회 역시 군민과 늘 함께하며 민의를 한 곳에 녹여내어 우리 고장의 부흥과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코로나19의 종식으로 다시 새롭게 향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곡성군의회위원장 정인균



곡성문화원장 곽광운

소통과 협력으로 웃음꽃이 활짝 피는 희망 곡성!

2020년 올해의 사자성은 아사타비(我是非非)라고 합니다.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 나와 내 편은 맞고 너와 네 편은 틀렸다"는 말입니다.

코로나19 재앙으로 인한 생사의 몸부림 속에서 온 세계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고 있는 이때, 협치는커녕 정쟁만을 일삼아 건강과 질서, 사회불안을 조장하

는 등 후안무치한 위정자들의 가슴에 심금을 울려주는 민초들의 분노가 함축된 메시지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곡성군민 여러분!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목표한 바를 달성하기 위해 **우보우보**처럼 수행과 깨달음으로 서둘지 말고 끈기 있게 노력하여 '부와 힘 소통과 협력! 건강과 평화!'를 상징하는 전화위복의 길은 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코로나19로 변화된 언택트 비접촉, 비대면사회는 생활방식과 문화, 학교와 행정, 직장과 비즈니스까지 바뀌고 있습니다. 인간사

회는 사람과의 연결과 접촉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소통마저 단절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사회적 거리 두기는 서로 단절되고 고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나은 내일의 대면사회와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선택된 것이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입니다.

우리 곡성군민 모두는 가족끼리 이웃끼리 연결되고 함께 일하면서 서로의 위로와 격려가 끊이지 않도록 합니다. 내가 먼저 전화하고 배려하는 마음 가득, '소통과 협력으로 웃음꽃이 활짝 피는 희망 곡성'을 만들어봅시다. 곡성문화 가족의 이름으로 100세시대 건강행복장수의 축복 선물을 전해드립니다.

튼튼한 섬진강 든든한 섬진강변 사람들!

섬진강에 난리가 났다

섬진강과 섬진강유역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 수마에 맞서 싸우며 인간힘을 썼지만 홍수가 남기고 간 섬진강과 유역 사람들은 온통 상처투성이뿐이다. 그 누가 섬진강과 섬진강 사람들을 수마로 신음하게 만들었는가?

제방 붕괴 섬진강변 마을 침수... 폭탄 맞은 듯 이수리장



2020년 8월 7일 새벽 기상청은 섬진강변 남원군 임실, 곡성, 구례 지리산권 등지에 호우주의보를 내렸다. 8월 7일부터 집중된 호우로 강물이 대거 불어났다. 섬진강댐 수위가 급격하게 오르자 수자원 공사는 방류량을 최대치 1,868보다 초과해서까지 내려보냈다고 한다. 퍼붓는 폭우와 섬진강댐 방류량까지 겹쳐 섬진강 강물은 더욱 맹렬하게 불어났다. 8일 오후 1시쯤에는 전북 남원시 금

지면 귀석리 부근에서 **섬진강 제방이 붕괴되는 난리가 일어났다.**

섬진강 제방이 무너지자 쓰나미처럼 순식간에 밀려든 강물은 금지면 일대 주택과 농경지와 비닐하우스 등 **수많은 재산을 십시간에 집어삼켰다.** 강물이 범람하자 마을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다. 남원시 금지면과 곡성은 경계인 국공도 인근 장성리, 신리, 대평리, 동산리, 마평리와 섬진강변 저지대 고달면 뇌죽리, 목동리, 고달리 앞까지 물이 들어왔다. 오곡면 오지리 일대 마을과 황금판도 침수되고 말았다. **수해 주민들은 급하게 대피하면서 겨우 물만 빠져나왔다.**

전남 구례군 토지면 송정리도 범람했으며 서서천 제방이 무너져 구례읍 양정마을 쪽으로 침수지역이 확대되었다. 경상도와 전라도가 만나는 화개장터도 물바다로 변했다. 섬진강 홍수 범람으로 인해 물에 잠긴 마을 마을들.....

구례읍을 비롯, 섬진강 하류 경남 하동 화개장터도 완전히 침수됐다. 섬진강댐 하루마다 섬진강 수위가 급격하게 높아지자 행정관청은 대피령을 신속히 전했고 주민들은 대피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발빠르게 대처하여 인명피해는 막았으나 다행이다.**



끊임없이 섬진강 물은 치솟아 올랐다. **섬진강 물결은 최악의 사태로 난리가 났다. 얼마나 아팠을까?** 섬진강변 길도 끊겨 버렸다. 자동차길도, 기차길도, 자전거길도 망가져 버렸다. 소떼들도 홍수를 피해 구례군 문척면 구례의 금강산이라 불리는 해발 531m 오산 사성암까지 올라왔다. 강물은 소용돌이치며 수마가 활귀고 간 마을마다 쑥대밭으로 변했다. 잘살아보겠다고 10여 년을 애지중지 기르면서 일과 사랑과 희망을 노래했던 소도 돼지도..... 100여 마리 염소도 토종닭도 다 사라져버렸다.



침실 습지 주변 강변에 가까스로 버티고 있는 소! 침수된 축사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채 신음하며 쓰러져 있는 소들이랑... 물에 잠긴 축사를 바라보며 그저 발만 동동구름 따름이었다. 소울음도 그치고 생명을 다해 몸부림치다 차츰하게 죽어간 소 떼들의 비참한 죽음 현장에서 **소 한 마리도 못 데리고 나온 주인의 마음을 누가 알아줄까?** 남의 일이 아니었다.

물난리로 물바다가 된 곡성 오이 멜론 비닐하우스단지! 수마가 활귀고 간 섬진강 유역 침수 피해 현장은 곱죽을 맞은 듯 처참했다. 물바다를 이뤘던 멜론과 오이 비닐하우스 단지 들녘에는 물이 빠진 이후 곳곳이 흉터물로 뒤범벅이 되었다. **마을마다 집집마다 구석구석 폐허 그 자체를 방불케 했다.**

섬진강 하류의 난리는 2020년 8월 7일부터 9일까지 평균 447.3mm의 폭우가 쏟아져 말로 헤아릴 수 없는 피해가 났다. 집중호우도 문제지만 섬진강댐에서 한꺼번에 방류한 많은 물이 중하류에 몰려 강물이 대거 불어나고 유속이 빨라져 제방 붕괴와 침수 피해가 확산됐다고 아우성이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시스템인데도 하류로만 방류한 것은 인재로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너도나도 말한다. 다목적댐인 섬진강댐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용수, 한국수자원공사가 생활용수를 관리한다. 이 기관들이 서로 방류와 담수를 놓고 판단이 달라 홍수 예방에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섬진강! 섬진강댐은 세 개 기관이 물을 나눠 관리하면서 홍수조절에 실패했다는 비판도 무성하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집중호우가 예보됐는데도 선제적 방류는커녕 담수만 고집하다가 물난리 전날 폭우 땀 짙은 방류... 다음날 최대 방류 땀 8분 전 통보하여 주민들의 대피에도 혼돈되게 했다고 예서에서 아우성 소리 들린다. 집중호우처럼 그칠 줄 모르고 쏟아졌다.

강은 흘러야 살고 강이 살아야 사람도 사는 것인데?

섬진강은 전라북도 진안군과 장수군의 경계인 팔공산(八功山) 아래 데미샘에서 발원하여 전

라남북도를 관통해서 남해 광양만(光陽灣)으로 흘러가는 하천이다. 전라북도 진안·임실·순창·남원과 전라남도 곡성·구례·광양 등 경상남도 하동군을 거쳐 남해로 들어간다. 섬진강은 예나 지금이나 한 많은 애환을 품고 변함없이 유유히 흐른다. 섬진강 발원지 실개천에서 흐르기 시작해서 임실 사선대를 지나 운암면으로 흘러들어 거대한 호수에 몸을 쉬는다. 흘러야 할 강이 거대한 호수로 변하게 된 건 섬진강 상류의 임실군 강진면 웅수리와 정읍시 산내면 종성리 사이를 가로지르는 섬진강댐 때문이다. 이곳은 섬진강 물이 유일하게 댐에 의해 막히는 곳이다. 강은 흘러야 살고 강이 살아야 사람도 사는 것인데?



섬진강댐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댐인가?

섬진강댐(嶺津江댐)은 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 옥정리에 위치하는 대한민국의 댐이다. 섬진강댐은 우리나라 최초의 다목적댐이다. 섬진강댐 강물은 정읍시 산내면에 있는 취수구에서 취수하여 약 5.2km의 수압터널을 지나 **동진강으로 유로를 바꾸어준다.** 그렇다. 섬진강댐은 호남 특정 지역뿐만 아니라 충청·경상도 일부지역의 생활용수, 농업용수, 발전용수,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목적댐이라고 하는데 나도 너도 우리 모두도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하여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섬진강댐 건설 준공 이후 5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10여 년 전에도 역대 30년, 40년 전에도..... 집중호우 때마다 오늘도 내일도 대대로..... 섬진강댐 중하류 지역은 홍수범람 위험 구역이다. 아니 시시때때로 소중한 인명피해가 났고 재산을 몽땅 앗아가는 극심한 홍수피해 재난을 겪어오만 했다.

섬진강댐 물관리-섬진강 홍수 책임은?

치수가 중요한가? 담수가 중요한가? 사람의 생명과 재산 안전이 더 중요한가? 섬진강댐 중하류지역은 집중호우 때마다 섬진강댐 담수와 방류의 물관리 홍수조절 실패가 아니라 예기치 못한 강우량을 탓할 수밖에 없다는 말인가? 집중호우 때마다 홍수기 댐 수위가 높아지면 **댐의 안전을 위해 방류량을 급격하게 최대로 늘릴 수밖에 없다**고만 할 것인가? 섬진강댐 중하류에 사는 주민들의 안전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는가? 과연 누가 어떻게 지켜 줄 것인가?



"워낙 큰 비" vs "미리 댐을 비웠어 야"...섬진강 홍수 책임은?

또다시 언제 어느 때 폭우로 집중호우로 홍수가 날지 두렵기만하다. 섬진강댐 중하류지역 주민들은 생명과 재산을 송두리채 앗아가도록 바라만 보고 있어야만 하는가? 섬진강댐 중하류지역 주민들의 안전, 안전 대책은 무엇인가? 안전 안전한 생활권과 소중한 생존권을 보장하라. 섬진강댐 중하류지역 주민들은 도대체 누구를 믿고 어디를 믿고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나요? 너무도 가슴 아프고 답답하기 그지없어 억척의 세월 상흔을 안고서도 오늘도 변함없이 묵묵히 흐르고 흘러가는 섬진강에게 물어본다. 섬진강은 알고 있다. 그러나 섬진강은 말이 없다. 섬진강아 말해다오. 그래도 섬진강물은 홍수가 남기고 간 처참한 상흔을 안은 채 묵묵히 농업용수로 호남평야 곡창지대의 젖줄이 되어주고, 인근 지역 주민들의 생활용수로 건강을 보호해 주는 생명줄이 되어주고, 발전수가 되어 전기를 생산하여 어둠을 밝혀주는 불빛도 비춰주고 있으니 섬진강물에게 고맙고 감사한 마음 그지없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고맙기 그지없고 감사하고 감사해야 할 **섬진강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있는가?** 홍수의 난이 지나간 섬진강엔 우매한 인간들이 버린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홍수의 난으로 위기에 처한 섬진강과 섬진강변 사람들을 더이상 괴롭혀 신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섬진강은 우리의 곡창지대 젖줄이요/ 섬진강은 우리의 생명줄이요/ 섬진강은 우리의 치유의 강이요/ 섬진강은 우리의 풍요로운 삶의 근원이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섬진강을 살려야 한다/ 그래야 섬진강유역 사람들도 산다.

다시는 다시는..... 섬진강 중하류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우리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절대로 절대로 안된다고.....!**

섬진강은 홀로 눈물 흘리며 한을 안고 한 많은 세월 살아오면서도 쓰러린 상처를 스스로 정화시키면서 고통에 시달리는 섬진강 수중생태계를 품에 안아준다. 아니 오히려 우리 사람들이까지 어루만져 주면서 변함없이 유유히 흐르는 섬진강은 우리 삶의 보고다.

어머니의 따스한 품속 같은 섬진강!

이제 우리 섬진강과 함께 대대로 더불어 우리도 한번 잘살아보자고 섬진강에서 새를 깨 일과 사랑과 희망의 노래를 불러보자.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10가지 근거

Q1 독도는 어떤 섬인가요

독도는 한반도 동쪽 끝에 위치한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섬입니다. 동도·서도 등 89개의 크고 작은 바위들로 이뤄져 있어요. 대한민국 천연기념물 336호입니다. 60여 종의 식물, 37종의 곤충, 22종의 조류, 그리고 수십 종의 바다 생물이 살고 있죠. 동해안에 날아드는 철새들이 도중에 쉬어 가는 곳이기도. 자연생태계의 보고(寶庫)인 독도는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진 우리의 소중한 유산입니다.

Q2 독도는 언제부터 우리 땅이 됐나요

우리 역사에 처음 등장한 시기는 고대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삼국시대 이전에 울릉도와 독도는 우산국(于山國)이라고 하는 조그만 왕국이었죠. 고려 승려 일연(一然)이 쓴 '삼국사기(三國史記)'에 따르면 신라 지증왕 13년(512년)에 이사부(異斯夫) 장군이 우산국을 정복하면서 신라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 후에도 독도는 계속해서 울릉도의 일부로 인식됐고, 우리 땅으로 관리돼 왔어요. 1900년 대한제국 고종 황제의 칙령(勅令·임금의 명령)으로 울릉도와 독도의 행정구역이 정해졌고, 현재 독도의 주소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0입니다.

Q3 옛 지도와 책에는 어떻게 기록돼 있나요

삼국시대부터 시작된 독도에 대한 기록은 고려·조선·대한제국 시대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펴낸 문서와 책에 계속 이어져 왔어요. 예컨대 조선시대 『세종실록지리지(1454년)』, 『신증동국여지승람(1531년)』, 『동국문헌비고(1770년)』 등 수많은 책에서 우리나라 동쪽 끝에 있는 두 개의 섬, 즉 울릉(울릉도)과 우산(독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옛 지도를 보더라도 『팔도총도(1531년)』, 『동국지도(18세기 중엽)』, 『조선전도(19세기 중엽)』 등에서 모두 우리나라 동쪽 끝에 지금의 울릉도·독도에 해당하는 두 개의 섬을 그려 놓아 우리 땅임을 보여 주고 있어요. 물론 옛날에는 지금처럼 정확한 지도를 만드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에 크거나 위치가 지금의 지도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도 동쪽 끝에 위치한 두 개의 섬인 울릉도와 독도를 우리 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히 확인돼요.

Q4 일본의 옛 지도와 책에는 뭐라고 기록돼 있나요

일본 정부 지시로 제작된 옛 지도에는 독도에 해당하는 섬이 어디에도 표시돼 있지 않아요. 예컨대 일본 에도(江戸)시대에 만들어진 『대일본연해여지전도(1821년)』를 비롯한 일본 정부가 만든 옛 지도들은 모두 울릉도와 독도를 표시하지 않고 있어요. 이는 독도를 자기네 땅으로 보지 않았던 일본 정부의 생각이 지도에 반영됐기 때문이죠. 이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의 오래된 책들과 문서에서도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고 계속 밝혔어요. 예를 들어 1693년 일본 어민들이 울릉도로 건너오는 문제 때문에 조선과 일본 사이에 갈등이 생기자 당시 일본 정부는 1695년 관할 지방관청인 돗토리(鳥取)번에 문서를 내려보내 울릉도가 그 지방에 속하는지 물어봅니다. 이에 대해 돗토리번은 '울릉도와 독도 등 그 지방에 속한 섬이 없다'고 회신했어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스스로 밝힌 것이죠. 이후 1877년에도 일본 정부의 최고기관인 태정관(太政官)은 일본 토지에 대한 기록 작성을 추진하면서 '울릉도 이외의 한 개의 섬은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지시를 내립니다. 태정관 지령에 붙어 있는 지도가 근래 일본에서 발견됐는데 '한 개의 섬'이 독도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답니다.

리에 따라 일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했지만 당시는 일본이 우리의 외교권을 빼앗은 상태였기 때문에 일본을 상대로 외교적 항의를 하기 어려웠어요. 힘없는 나라의 비극이었죠.

Q5 독도와 관련된 안용복(安龍福)은 어떤 인물이죠

조선 숙종 때의 어민입니다. 그는 울릉도 부근에서 불법으로 고기잡이 하던 일본인들에게 항의하다 일본에 잡혀가기도 했고 스스로 일본으로 건너가기도 했죠. 그는 일본에 두 번이나 가서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땅임을 알리고 왔어요. 안용복의 이러한 활동은 한국과 일본의 역사책에 모두 기록돼 있어요. 그의 활동 기록은 이후 일본 정부가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님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계기가 됐어요. 그러나 일본은 지금 와서 뒤늦게 안용복에 관한 기록이 잘못된 것들이 많고 과장됐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어요. 하지만 최근 일본에서 발견된 안용복 조사 기록 문서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8도의 강원도(지금은 경상북도)에 속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입증하고 있어요.

Q6 일본이 독도를 언제부터 빼앗으려 했나요

1905년 당시 일본은 우리나라(대한제국)를 놓고 러시아와 러일전쟁(1904~1905년)을 하고 있었어요. 일본은 동해에서 러시아 해군과 싸울 때 독도를 중요한 군사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고 여겼죠. 그래서 일본은 지방정부인 시마네(島根)현 고시 40호를 일방적으로 발표해 독도를 일본 땅으로 만들려 했어요. 일본의 관련 자료를 보면 당시 일본 정부 안에서도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생각되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묵살됐죠. 러시아 군함을 감시할 목적으로 밀어붙여 독도를 불법적으로 일본 땅으로 만들려고 했죠. 이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5년 뒤인 1910년 우리나라 땅 전부를 강제로 일본에 병합했어요. 식민지로 삼아 버린 것이죠. 결국 독도는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를 침략해 불법적으로 우리 땅을 빼앗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희생된 우리 땅인 셈이죠.

Q7 당시 우리는 어떻게 대응했나요

러시아와의 전쟁이 한창이던 당시 일본은 무력으로 우리 정부를 위협해 우리 땅을 자신들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일본이 임명한 재정·외교 고문을 파견해 우리나라 정부 정책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했어요. 일본은 1905년 독도를 일방적으로 자기네 땅으로 만들려 하면서 이웃 국가들에 전혀 알리지도 않았어요. 몰래 훔치려 한 셈이죠. 우리나라는 뒤늦게 1906년 3월에야 울릉도를 방문한 일본 관리들로부터 그런 사실을 알게 됐죠. 당시 울도(울릉도) 군수 심흥택은 조정(중앙정부)에 그대로 보고 했어요. 조정은

이에 따라 일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했지만 당시는 일본이 우리의 외교권을 빼앗은 상태였기 때문에 일본을 상대로 외교적 항의를 하기 어려웠어요. 힘없는 나라의 비극이었죠.

Q8 일본이 지금도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뭐죠

일본은 17세기 무렵 자국 어민들이 독도 근해에 가서 고기잡이를 한 적이 있고 1905년 지방관청(시마네현)의 고시를 통해 독도를 일본 땅으로 편입했기 때문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억지를 부리죠. 그러나 17세기 울릉도를 놓고 우리와 일본 사이에 벌어진 사건에서 보듯 독도는 그전에 이미 명백히 우리 땅으로 확인된 상태였어요. 1905년 일본 시마네현 고시는 일본이 우리 주권을 불법적으로 빼앗는 과정에서 이뤄진 행위이므로 국제법적으로 효력이 없어요.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이 끝나고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완전 독립하면서 다시 우리 땅으로 온전히 회복됐어요.

Q9 우리는 독도에 대해 주권을 어떻게 행사하고 있나요

대한민국은 우리 땅 독도에 대해 입법·행정·사법적으로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이 대통령이 8월 10일 독도에 간 것도 그런 맥락이죠. 첫째, 경찰경북경찰청 소속 독도경비대원 40명이 현지에서 독도를 경비하고 있어요. 둘째, 대한민국 군대가 바다와 하늘에서 독도를 지키고 있어요. 셋째, 대한민국의 각종 법률이 독도에 적용되고 있어요. 넷째, 등대 등 여러 시설물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어요. 다섯째, 민간인으로는 김성도(72)씨 부부가 삽니다. 그는 2008년 독도 이장에 임명됐어요.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은 논란의 여지가 없으며 어떤 경우에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거랍니다.

Q10 우리가 당당하게 ICJ(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일본과 싸우지 않는 이유는 뭐죠

명백한 우리 땅 독도를 놓고 누군가가 엉뚱하게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서 재판으로 결정하자고 주장할 경우 그런 부당한 주장에 응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특히 일본이 독도 문제를 ICJ에서 해결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독도를 둘러싸고 마치 영토분쟁이 존재하는 것처럼 국제사회의 여론을 호도해 우리의 확고한 주권을 흔들려는 흉계입니다. 1954년과 1962년에도 일본이 독도를 ICJ에 가져가자고 제안했지만 우리는 '독도는 단순한 동해의 작은 섬이 아니라 대한민국 주권의 상징'이라는 논리로 단호하게 거절했지요. 그런 (우리 정부의)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답니다.

[도움말] 외교통상부 영토해양과, 동북아역사재단, 최서면 국제한국연구원장

[자료] 『독도문제개론』(외교통상부), 『일본이 모르는 10가지 독도의 진실』(동북아역사재단), 『독도실록』(책발, 예영준 저), 참고 url, 참조-중앙일보 뉴스클리프 http://www.ajo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9921501&ctg=

대마도도 한국 영토라는 것을 아십니까?

"대마도(對馬島)는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 조공을 바친 우리 땅이었다.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이 그 땅을 무력 강점했지만 결사 항전한 (대마도) 의병들이 이를 격퇴했고 의병 전적비(戰蹟碑)가 대마도 도처에 세워져 있다. 1870년대에 대마도를 불법적으로 삼킨 일본은 포츠담 선언에서 불법으로 소유한 영토를 반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돌려줘야 한다." 1949년 1월 7일 대한민국 건국대통령 이승만(李承晩)이 첫 연두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이날 이승만은 한 일국과 재개를 언급하면서 대마도 문제를 꺼냈다.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라는 미국 요구에 맞서기 위한 지렛대로 대마도 카드를 뽑아든 것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그때가 처음이 아니다. 그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한 지 사흘 뒤인 8월 18일 성명에서 '대마도는 우리 땅'이니 일본은 속히 반환하라고 했다. 일본이 항의하자 이승만은 외무부를 시켜 그해 9월 '대마도 속령(屬領)에 관한 성명'을 발표했다. 이승만의 연두 기자회견 직후인 1949년 1월 18일 제헌 의원 31명이 '대마도 반환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얼마 후 있게 될 샌프란시스코 미일 강화회의에서 대마도 반환을 관철시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국내의 한 언론이 2005년 입수한 미국 국무부 외교문서에 따르면 1951년 4월 27일 한국 정부는 미 국무부에 보낸 문서에 다음과 같이 썼다. "한국은 일본이 대마도에 대한 모든 권리, 호칭, 청구권을 분명히 포기하고 그것을 한국에 돌려줄 것을 요청한다(In view of this fact the Republic of Korea request that Japan specifically renounce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the Island of Tsushima and return it

조선초 태종 등 영유권 강력 주장 이승만 대통령도 "반환하라" 요구

to the Republic of Korea)고 밝혔다. 대마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조선 초에도 강력하게 제기됐었다. 왜구의 침략이 계속되자 세종 원년(1419년) 상왕 태종은 대마도정벌을 결심한다. 그때 밝힌 교유문(敎諭文)의 서두다. 일종의 선전포고였다. "대마도는 섬으로 본래 우리나라의 땅이다. 다만 궁벽하게 막혀 있고 또 좁고 누추하므로 왜놈들이 거류하게 두었더니 개같이 도적질하고 쥐같이 훔치는 버릇을 가지고 경인년부터 뛰놀기 시작했다." 태종의 교유문은 일종의 선전포고였다. 그리고 정벌이 끝난 후 대마도 도주에게 교유문에서 그는 다시 한번 대마도가 우리 땅이었음을 명확하게 밝힌다. "대마도가 섬으로 경상도의 계림(鷄林-경주)에 예속되었던바 본시 우리나라 땅이라는 것이 문적(文籍)에 실려 있어 확실하게 상고할 수 있다." 임진왜란이 대마도의 운명을 갈라놓았다. 양다리를 걸친 대마도주는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일본화를 지향했고 임란 직후인 17세기 초 일본의 막번 체제에 편입됐다. 조선 전기 때만 해도 조선의 신하임을 당당히 밝혔던 대마도 도주가 일본으로 넘어간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의 지적대로 1870년대 완전히 일본화됐다. 지금 대마도는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다. 그 근거는 우리가 독도를 실효 지배하는 것보다 훨씬 근거가 약하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것에 비하면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는 주장이 훨씬 설득력 있고 근거도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7/25/2008072501220.html

정리/ 곡성문화원 빙산호 회원

곡성 산골 '독도사진전시관'... 사고비 얽힌 김종권 사진작가의 사연

독도에서 460여km 떨어진 전남 곡성군 죽곡면 산골 마을 (옛)동계초등학교 폐교에 가면 김종권 사진작가가 운영하고 있는 독도사진전시관을 만날 수 있다. 김종권 사진작가가 산골 마을에 독도를 주제로 한 사진전



시관을 연 것은 2007년 7월이었다. 김작가의 사고비 얽힌 사연이 빼곡하게 담겨있는 「김종권독도사진전시관」을 소개하고자 한다.

김종권 작가는 1972년부터 전문 산악인으로 활동하면서 전국 유명산의 풍경을 카메라 렌즈에 담은 '비경 전문 사진작가'였다. 서울 충무로에서 '사진 작가계의 조용필'이라는 별칭으로 명성을 날리기도 했다. 그는 울릉도 석포에서 육안으로 희미하게 보이는 독도의 모습을 필름 속에 담은 것이 그의 인생을 바꿨다고 한다.

김종권 사진작가의 독도사진들! 허세를 접고 은혜를 세상에 되돌려 주며 살고파~

"1997년부터 본격적으로 독도를 방문하기 시작했다. 당시만 해도 독도는 공개제한구역이었기에 일반인이 입도하려면 까다로운 허가를 받아야만 했다. 그래서 독도 사진도 그만큼 희귀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독도에 매료된 김 작가는 섬 청소를 위해 들어가는 배를 얻어타거나, 자비로 유람선을 빌려 타고 독도를 방문했다.



독도 사고로 다친 김종권 사진작가

그러던 중 2007년 1월 8일 독도경비대 숙소에서 신세 지며 독도에 머물던 그는 돌풍이 몰아치는 독도의 풍경을 찍기 위해 카메라를 들고 헬기착륙장으로 나갔다. 그 순간 돌풍이 김 작가가 입고 있던 상의의 열린 지퍼 틈을 비집고 들어와 풍선처럼 옷을 부풀려 들어 올렸다. 공중으로 날아간 그는 머리를 땅에 심하게 부딪히며 추락했다. 머리를 28바늘 꿰매야 할 정도로 크게 다쳤다. 당시 독도경비대에 치료수단이라고는 연구 하나와 붕대밖에 없었다. 7m의 파도와 거센 돌풍 탓에 항공이나 배편 긴급 이송은 꿈도 꾸지 못할 상황이었다. 그렇게도 응급한 상황 속에 사흘 동안이나 외로운 독도에서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며 참고 버틸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사고 발생 3일 후, 해경 경비정이 김 작가를 구하기 위해 거센 파도를 뚫고 독도에 도착했다. 그는 경비정에 오르며 "나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와준 사람들 덕분에 살았으니 허세를 접고 은혜를 세상에 되돌려 주며 살겠다"고 다짐했다고 한다.

200여점 사진속에 살아 숨쉬는 독도 역사 빼곡

김종권 작가의 사고 소식에 얽힌 사연과 독도사진이라는 명성을 익히 듣고 그의 애국충정을 높이 산 곡성군(당시 군수 고현석)은 때마침 매입한 폐교를 무상으로 김 작가에게 제공해 주었다. 김 작가는 2층 구조의 폐교에 30여 차례 이상 독도를 방문하여 손수 찍어 온 수 만장의 독도 사진을 고르고 골라 사진전시관을 차렸다.

맨땅인 운동장에는 잔디를 심었고, 전시관 건물로 향하는 길에는 들꽃으로 수놓았다. 전시관 1층에서 2층 독도 사진 전시공간까지 향하는 학교 건물 계단에는 10여 년 동안 방문한 이들의 독도 사진 예찬 글이 가득 쌓여 있고, 복도에는 김 작가가 수집한 독도 관련 용품과 역사 기록물이 빈 곳을 찾기 힘들 정도로 빼곡히 배치돼 있다. 학교 교실을 고쳐 마련한 독도 사진 전시공간에는 200여 점의 독도 사진이 알록달록 사계절의 빛을 간직한 채 배치돼 있다.

"울릉도에서 희미하게나마 육안으로 보이는 저 조그마한 섬이 독도입니다. 우리나라 독도가 우



리 눈에 보이는 우리 땅임을 전 세계에 알린 최초의 사진이 아마 이 사진일 겁니다."

정부 기관이 2004년 독도 사진을 구하려고 백방으로 수소문하다 김 작가의 사진을 발견하고 제공을 요청, 130여 개 국가의 해외 기자들에게 이 사진을 배포해 독도가 한국 땅에서 육안으로 보이는 우리 땅임을 알렸다는 사연이 그의 입에서 생생하게 흘러나왔다고 한다.

독도의 최고 봉우리를 '대한봉'이라고 이름 붙여 사진 찍은 이도 김 작가이다. 교과서에 실린 독도 사진, 죽은 나무·갈매기를 독도지킴이로 찍은 사진, 봄·여름·가을·겨울의 독도 모습, 독도의 거주민인 김성도 부부의 모습 등 그의 독도 사진 하나하나에는 독도에 얽힌 사연도 함께 녹아있다.

독도사진전시관에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한창이던 때는 한 달에 1천여 명이 찾기도 했지만, 지금은 관심이 줄어 절반 정도인 500~600명이 방문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 김종권 작가는 "한일관계가 뜨거울 때만 독도를 외치는 게 아니라 독도를 알고 자랑스러워해야 우리 땅이 된다"며 "이곳 독도사진전시관이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힐까 두렵다"고 말했다.

(출처/연합뉴스, pch80@yna.co.kr, 2016.10.23.) 재구성·역은이 / 곡성문화원 배숙영 기획실장

김종권 작가의 열이 살아 숨쉬는 김종권독도사진전시관!

전국 유일 독도사진전시관! - 2018 자랑스런 대한민국인 대상 문화예술부문 수상-

우리나라의 독도 사진을 찍는 작가 가운데서 김종권 작가는 독보적 존재이다. 독도를 무려 30여 차례나 방문하여 죽을 고비를 넘기며 찍은 독도 사진이 고비하게 전시되어 있어 보는 이의 눈길을 끌고 감동과 교훈이 가슴에 스며든다.

그 누구보다도 독도를 사랑한 나머지 독도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독도 사진 촬영에 매진한 애국 사진가 김종권 작가의 사진을 바라보면 볼수록 그의 열정과 불타오르는 애국심이 절로 우리나라다.

김종권 작가께서 이처럼 독도 사진에 매달린 이유는 "독도는 우리 땅이다"는 백 마디의 외침보다, 독도의 생생한 풍경을 담은 사진 한 장 한 장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김종권독도사진전시관,을 직접 찾아온 방문객들이나 작가께서 찍은 독도 사진들을 접한 우리 국민들에게 독도의 존재감을 일깨우는데 큰 역할을 해 주었다. 해외까지 독도가 우리 땅임을 전파해 준 독도 파수꾼이요 홍보대사가 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김종권 작가는 대한민국의 애국훈이 넘쳐 흐르는 장한 국민이요, 자랑스런 애국지사이다. 이러한 공로로 2018 자랑스런 대한민국인 대상 문화예술부문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출처 : 곡성에서 온 편지(gokseong_love), 곡성레터, 곡성군 공식 블로그 재구성·역은이 / 곡성문화원 배숙영 기획실장



독도 사진 전시관에는 작가와 고락을 함께 한 삼각대와 카메라들도 전시되어 있다.



독도의 생태계를 찍은 별도의 특별 전시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독도 사진전시관에는 독도를 담은 수백 점의 걸작들을 만날 수 있다.



정해박해 진원지 곡성

곡성천주교 탄압과 박해의 역사, 신심을 지킨 순교자들..!

조선시대 천주교 도래 시기에 조선 왕실에서는 유교적 사상을 배척하는 천주교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다. 독실한 천주교인들은 자신들을 탄압하고 박해하는 조선 왕실에 대해 적대감을 품게 되었다. 그결수록 천주교의 가르침을 깊이 신봉하며 선교활동에 참여하거나 관아에 잡혀가 조사를 받는 일이 많아졌다. 이와 같은 적대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전라도 곡성현의 웅기 교우촌 천주교 신자들에 대한 곡성 현감의 탄압과 억압으로 정해박해는 시작되었다.



정해박해 순교자의 피와 가슴 아픈 역사 현장 옥터 성지

현재 정해박해 진원지는 전라남도 곡성군 옥곡면 승법리 덕실마을이다. 곡성현 웅기 교우촌인 덕실마을에서 시작된 정해 박해는 음력 2월부터 5월까지 3~4개월 동안 전주를 중심으로

전라도 전지역으로 여파가 미치면서 240여 명의 천주교 신도들이 체포되어 관아에 감금되었다.

이를 계기로 경상도의 상주와 충청도 단양, 한양까지 확산되어 전국 곳곳의 교우촌이 관군들에게 감속 당하여 500여 명의 신도들이 체포되었다. 이들은 감옥에서 추위와 질병, 배고픔 등으로 온갖 고통을 받아야만 했으며, 모진 문초와 질고를 견디며 천주를 향한 굳은 믿음으로 기도의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전라감사 이광문의 책책과 당국 정책에 기인하여 모진 고문을 당한 나머지 오렌시월 견디다 못해 배교하여 석방된 자들이 있는가 하면 유배형을 받은 신자들도 많았다. 관아의 추적을 따돌리고 몸을 피한 교인들이 전국 곳곳의 심산유곡에 숨어 선교활동에 적극 참여한 결과 오히려 신앙전파가 더욱 촉진되었다. 정해박해로 인해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신앙을 사수하다가 숙청, 처형, 참수, 옥사 등 온갖 고초를 당하며 **순교한 이들이 16명이나 되었다**고 기록으로 전해오고 있다.

정해박해와 곡성 천주교 웅기 교우촌 덕실마을 승법리 가마터

1791년 신해박해로 시작된 조선 천주교 박해사건은 1801년 신유박해, 1815년 을해 박해 등 박해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이렇게 박해가 계속되는 동안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던 신도들은 살림이 매우 궁핍하게 되었다. 가난을 면치 못한 신도들은 구걸을 하면서 의지 할 곳 없어 조정의 박해를 피해 첩첩산중으로 숨어들어 기근과 두려움을 오로지 신앙에 의지하며 싸워야 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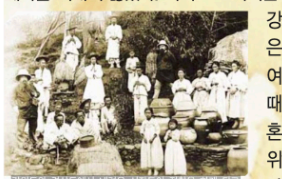
이와 같이 천주교를 그릇된 교리로 사회에 해를 끼치는 종교 즉 사교(邪敎)로 몰아 신자들을 괴롭히는 일이 자주 일어났다. 그러자 신앙이 노출된 천주교인들은 정든 고향을 떠나 외지의 산간벽지 오지 산골에 숨어들어 굴을 파고 사는 등 교인들끼리 교인촌을 이루어 생계를 유지하며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곡성현에도 이러한 천주교 신자들이 박해를 피해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섬진강변 통명산 산골짜기에 찾아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형성된 곡성 웅기촌 덕실마을은 천주교 도래 초 창기 교우촌으로써 형성시기는 1810년 전후로 추정된다. 하지만 차후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

곡성현에도 이러한 천주교 신자들이 박해를 피해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섬진강변 통명산 산골짜기에 찾아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형성된 곡성 웅기촌 덕실마을은 천주교 도래 초 창기 교우촌으로써 형성시기는 1810년 전후로 추정된다. 하지만 차후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

곡성현 웅기촌 천주교 교인들의 특징

곡성 덕실마을 웅기촌은 천주교인으로 이루어졌다. 웅기촌장은 일반인에게도 일자리와 잠자리를 제공해 주었으며, 선교활동을 통해 많은 교인들이 찾아들었다. 특히 가족단위 교인들이 많았다고 한다. 웅기촌 교인들은 성경을 필사해서 나누었고, 성경 말씀을 따라 조상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 여러모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 모여 성경 강습도 했다. 웅기촌 교인들은 신앙공동체로 일심단결하여 신앙 탄압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거짓 증언으로 수사에 혼선을 주어 증거를 감추기 위해 동료를 보호하고 협력했다고 한다.



1827년 3월 23일, 정해박해의 주도적 인물이었던 전라감사 이광문이 작성한 기록 '일성록'에 의하면 '곡성현 웅기촌 교인

중에서 동료를 배신하거나 천주를 부인한 사람 한 명도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오히려 동료 교인을 감추기 위해 중요한 인물이 아니라고 증언해 주거나, 증거를 감추기 위해 서로 협력한 정황이 엿보인다.

이와 같은 정해박해 발단 당시의 정황과 '일성록' 기록을 종합해 보면 곡성현 웅기촌 천주교 교우들은 신체적 고통을 동반한 모진 문초에도 불구하고 동료 교우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安危를 돌보지 않았으며, 배교하지 않고 천주를 섬기기 위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들이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후대의 우리들은 정해박해 당시 곡성 웅기촌 교우들의 믿음을 기리고 재조명해 보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된다.

옥터 성지 곡성성당

섬진강과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곡성성당은 1827년에 발생한 정해박해의 진원지이다. 옛날 곡성현 관아가 있었던 자리이며 죄수를 가두던 옥사가 있던 곳이다 성당을 세웠다. 교우들이 붙잡혀와 갇힌 옥터이기도 하여 '옥터 성지'라고도 한다. 곡성성당은 광주교구 소속으로 교구는 1957년 정해박해 당시 순교의 현장에 본당을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다. 초대 신부는 캐롤 빈첸시오(Vincent, Carroll, 재임: 1958~1962. 2) 신부이다. 당시 지역 신자수가 10여 명에 불과했음에도 성당 건립이 추진되었던 이유는 순교자를 배출한 이 고장 이 자리에 본당이 설립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었다.



1958. 10. 06. 본당 축성. 현 옥터 성지. 광주대교구는 1957년 순교의 현장에 곡성본당을 준공하게 된다

당시 문정중학교 이정재 교장이 성당 부지 약 1,000평과 가액을 헌납함으로써 급진전될 수 있었다. 그 결과 전남 곡성군 곡성을 읍내리 5구 425 소재에 박해 당시 옥쳐였던 객사 자리를 매입했고, 1958년 8월에 성당을 완공, 그해 10월에 축성식을 하였다. 그 후 2001년 곡성성당은 성지조성계획을 발표했다. 2002년 7월 정해박해 순교 성지 기념 '하늘뜻' 축복식을 갖고 성역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2006년 정해박해 진원지이자 옥터 위에 세워진 본당에 걸맞게 성당 개축 공사를 시작했다. 2007년 정해박해 180주년 기념 학술대회가 곡성성당 주례로 개최되었다. 2008년 10월 본당 설립 50주년 기념 사업으로 성당 마당에 옥사를 복원하고 야외 십자가의 길을 조성하는 등 주변 공원화 사업을 펼치기 시작했다. 앞으로 덕실마을 미산 가마터와 성당을 잇는 정해박해 기념성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정해박해의 역사적 의미 및 향후 과제 - 정해박해와 곡성, 오늘의 결실이 있기까지 - 조선 후기 천주교가 겪었던 정해박해 등의 많은 박해 사건들은 학계와 연구자들의 무관심에 의한 종교사 및 박해사 그리고 지역사 연구 등에서 소외되어 왔다. 조선 역사에서의 천주교 박해 사건 자체가 가질 수 있는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간과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정해박해의 역사적 의미 및 향후 과제 - 정해박해와 곡성, 오늘의 결실이 있기까지 -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에 발간된 '정해박해와 곡성'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 책이 발간되기까지는 저자인 곡성문화원 조준원 문화관광 경영학박사 와 호남대학교 여영숙 관광경영학과 교수의 공로가 지대하다.

2003년 정해박해와 도요지에 대한 다큐멘터리 제작 및 발표, 2009년 정해박해와 도요지에 대한 연구, 2015년 곡성군과 함께 조사하여 학계 최초로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일성록'의 곡성 정해박해 관련 기록을 찾아서 '정해박해 학술용역 결과보고서'를 발간했다. 2017년과 2018년 관광연구문화 등에 정해박해 연구논문을 게재했으며, 2018년 KBS 광주방송과 함께 <전라남도 매력극-곡성의 정해박해>를 조사하여 제작 보도하는 등의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 이와 같은 결실을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원천콘텐츠 사업 연구 총서 '정해박해와 곡성'으로 발간하게 되었다.

정해박해와 곡성의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

정해박해는 1801년 신유박해 이후 거듭되는 박해를 피해 많은 신자들이 대거 이동하면서 지방의 여러 곳에 새 교우촌들이 형성되었고, 그곳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국 지방의 곳곳으로 전파하고 있던

사실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1827년 정해박해 진원지인 곡성군은 우리나라 천주교사뿐만 아니라 종교사와 곡성군의 지역사 연구에서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첫째, 옥토 성지 곡성성당은 정해박해 당시 순교의 현장이며, 천주교 역사의 중요한 유적지이다. 둘째, 곡성군 옥곡면 승법리 덕실마을 웅기 교우촌과 가마터는 초기 천주교인들이 조정의 박해를 피해 집성촌 마을을 이루며 신앙생활을 하였던 종교문화적으로 매우 역사성이 있는 장소이다. 더불어 천주교 전래의 가슴아픈 역사와 19세기 초 천주교인의 역사적 현상이 보존되어 있는 곡성군의 지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향토 문화유산이다. 셋째, 프랑스의 샤를르 달레 신부가 저술한 1874년 조선 천주교사에 기록된 장소이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찬역사서인 조선왕조실록과 일성록에 1827년 정해박해가 곡성에서 처음 일어난 장소로 당시 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은 곡성 천주교 옥터 성지를 중심으로 곡성군 옥곡면 승법리와 미산리의 웅기 교우촌과 웅기 가마터의 정해박해 관련 유적 및 유물 등 현조사를 통한 발굴 및 보존은 물론 국내 천주교 유적지와 웅기 가마터를 콘텐츠로 한 성지순례길을 연계 조성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역사교육의 산실이 될 것이다.

정해박해와 곡성의 향후 과제

정해박해와 곡성의 향후 과제는 곡성군 옥곡면 승법리 덕실마을 웅기교우촌과 옥터성지 곡성성당을 잇는 천주교 정해박해 성지 순례길을 조성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섬진강 곡성 가마터를 증기기관차와 레일바이크 그리고 천사정기공원을 연계하는 곡성군의 문화유적지로 지정하고,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곡성군지자체와 곡성문화원에서는 정해박해 진원지를 중심으로 천주교 순례길 조성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문헌연구와 승법리 덕실마을과 미산리 웅기 교우촌의 지표조사를 이미 마쳤다. 그리고 옥토성지 곡성 성당을 중심으로 곡성군의 웅기 교우촌과 웅기 가마터의 향토문화 유산 보호 및 활용의 구체적인 방안도 한국문화원연합회 학술총서① 조준원·여영숙의 '정해박해와 곡성' 편찬 책자에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는 '조선천주교회사에 실린 정해박해 정사를 왜곡하고 폄하한 내용이 엿보여 향후 정립되고 사리에 맞게 바로잡아 16위 순교자의 피로 물들어 있는 정해박해의 정당성 회복을 위한 과제를 피력해 본다. 정해박해 순교자는 전술한 바와 같이 16명이다. 아직도 미처 찾지 못한 수많은 순교의 얼이 살아 숨 쉬고 있다고 본다. 그런데 '모든 박해 중에서 가장 통탄할 만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배교자가 많았던 때는 일찍이 없었다며 곡성 천주교 정해박해의 전개 과정과 결과 자체를 부정적으로 묘사한 어느 한 부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는 당시 조선시대 조정의 천주교인에 대한 회유와 압박, 배교를 유도하는 술책, 정치·사회적 배경과 문화적·사상적 배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정황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정해박해 당시 신앙적으로 순교한 순교자들의 신심과 거룩한 피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랜 세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왜곡된 사건의 내용과 집필자의 편협된 신앙관이 진실인 양 기록되었다는 정황을 엿볼 수 있으니 애석하기 짝이 없다.

샤를르 달레(CharlesDallet) 신부는 '박해의 폭풍이 오히려 복음의 씨를 더 멀리 날렸다.'고 평하였다. 결국 정해박해도 신유박해, 기해박해 등 조선시대 크고 작은 14개의 박해처럼 천주교의 복음이 우리 땅은 물론 다른 나라에 이르기까지 복음의 씨가 널리 퍼져나가는 데 크게 한신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그러기에 곡성군지자체와 곡성문화원 그리고 곡성 성당은 옥터성지 곡성성당을 중심으로 곡성 옥곡 승법리 덕실마을 웅기 교우촌을 정해박해 성지로 조성하려는 기반을 일찍이 2001년부터 구축해 왔다.

지금도 이곳엔 전국 각지의 신도들이 시련의 정해박해를 딛고 그 위에 믿음의 뿌리를 깊숙이 내리어 피로 물든 생생한 순교의 현장인 옥터성지 곡성성당과 웅기교우촌 선조들의 신앙의 숨결을 느끼려는 순례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역사적으로도 한 가정에서, 한 고을에서, 한 나라에서 단 한 명의 순교자, 단 한 명의 순교자가 나왔어도 순교·순국선열의 거룩한 업을 소중히 가치로 여기고, 찬양하고 숭상하며 교육적·문화적 유산으로 널리 기리고 선양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천주교 박해사적 차원에서 곡성 정해박해의 왜곡된 역사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절박한 과제이다.** 앞으로 정해박해에 대한 문헌 및 실증적 연구가 더욱 심도 있게 이루어져 천주교 박해의 역사에서 정해박해의 의의와 중요성이 재조명되기를 바란다. 더불어 정해박해 진원지 곡성성당과 덕실마을 웅기교우촌이 성지의 땅으로 발간되어 성지순례객들로 붐비고 정해박해의 고초와 아픔을 체험하면서 모두가 축복받고 생명을 중시하는 구원의 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출처 / 조준원·여영숙, '정해박해와 곡성', 한국문화원연합회, 2020. 역역이 / 곡성문화원장 교광문

제21회 **효녀심청** 전국 어린이 예술 공모전 수상작

글짓기부문 수상자 명단

| 구분 | 성명 | 학교 |
|-----|-----------|-----------|
| 대상 | 박재은 | 울산 동백초등학교 |
| 금상 | 김지호 | 충주 국원초등학교 |
| 은상 | 김태희 | 충주 동량초등학교 |
| 은상 | 김연주 | 광주 학운초등학교 |
| 동상 | 박소정 외 7명 | |
| 장려상 | 구영준 외 56명 | |

그림부문 수상자 명단

| 구분 | 성명 | 학교 |
|-----|------------|-----------|
| 대상 | 변지윤 | 영주 영일초등학교 |
| 금상 | 권은호 | 서울 가원초등학교 |
| 금상 | 김예담 | 충주 탄금초등학교 |
| 은상 | 김규린 | 여수 한려초등학교 |
| 은상 | 전은서 | 천안 안서초등학교 |
| 동상 | 박시우 외 33명 | |
| 장려상 | 정정화 외 212명 | |

유치부 수상자 명단

| 구분 | 성명 |
|-----|------------|
| 대상 | 윤정훈 |
| 금상 | 황하람 외 9명 |
| 은상 | 정유준 외 9명 |
| 동상 | 이지원 외 8명 |
| 장려상 | 박예빈 외 120명 |

그림 부문 대상

영주영일초등학교 6-3 변지윤



유치부 대상

손가락자국 미술원 유치부 윤정훈



글짓기 부문 대상

심청이를 만난 용왕의 딸, 바단이

울산동백초등학교 4-1 박재은

옛날에 인당수 아래에는 용궁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 용궁에는 용왕이 있었는데, 용왕은 외동딸이 있었어요. 용왕의 딸 이름은 바단이였어요. 바단은 바다에서 유명했어요. 왜냐하면 예쁘기도 하고 도도하기도요. 그런데 웬일인지 바단의 심청이 되겠다고 나서는 청년이 없었어요. 바단은 성격이 나쁘거든요. 용왕은 바단의 말투 때문에 매일매일 머리가 아팠어요. 평소에도 듣는 말들은 하나같이 듣기 싫은 말이었어요.

"아버지는 왜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해요? 진짜 짜증나요!"
"아버지는 왜 이렇게 멍청해요? 참 이상해요!"
"아버지는 왜 그렇게 저에게 관심이 없어요? 하나뿐인 딸한테 정말 너무해요!"
이런 말이 평소에도 듣는 말이니 용왕은 걱정이 컸어요. 딸은 어릴 때부터 귀하게 키워져서 당연하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는 자신의 대한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더 많은 관심을 주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용왕은 큰 고민에 빠졌어요. 여자는 법적으로 용왕이 될 수 없다고 되었거든요.

그런데 용궁은 한 개가 아니에요. 바다가 넓으니 용궁은 바다 곳곳에 있지요. 그리고 법을 만드는 것은 바다의 신이랄까요? 그래서 법을 어기면 그 용궁의 지배자를 다시 뽑아야하는데 그러는데 시간이 꽤 걸려서 그 구역이 위험에 빠질 수 있지요. 그래서 신랑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용왕은 며칠째 큰 고민에 빠져있답니다.

그렇게 용왕이 꿈꾸던 어느 날 있었어요. 용왕이 잠깐 바깥 산책을 나왔는데 무언가 떨어졌어요. 한 소녀였지요. 용왕은 그 소녀를 용궁으로 데리고 갔어요. "아버지! 그 계집애는 뭐예요? 진짜 마음에 안들어!" 바단은 또 심술을 부렸어요. "바단이, 갑자기 바닷속으로 떨어져서 그래 혹시 모르니 치료하려고 데리고 온거야."
"아버지! 이제는 나보다 다른 계집애를 더 좋아하는 거야? 너무해!"
용왕은 아무 말도 못하고 여자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갔어요.
"의원, 한번 살펴봐주세요."
"알겠습니다, 용왕님."
의원은 소녀를 요리조리 살펴보았어요.
"용왕님, 보이하니 육지에서 온 듯 합니다."
"그런가? 살아있는가?"
"예, 그렇사옵니다."
그사이 소녀가 일어났어요.
"...쿨럭쿨럭, 어? 여기는 어디죠?"
"여기는 용궁이란다. 난 용왕이고, 여기는 왜 온것이야?"
"아, 용왕님, 저는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인당수에 빠졌답니다."
용왕은 감탄을 했어요. 아버지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고 하니...
"그런데 너의 이름은 무엇인가?"
"심청이라고 합니다."
용왕은 예의바른 심청이가 좋아졌어요.
"우리 딸, 바단이라도 이리하면 얼마나 좋을까..."
용왕이 생각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용왕의 등을 쳤어요.
"아버지, 이제는 나보다 저..."
"저?... 안녕하세요? 저는 심청이라고 해요."
심청이가 갑자기 바단에게 인사를 했어요.
"어... 안녕, 난 바단이야."
"저, 바단이, 심청이 데리고 방에 가 있을 수 있었나?"
용왕은 바단에게 좋을 것 같아서 심청이를 바단이 방에 보냈어요.
심청이는 바단의 방에 가 보았어요. 심청이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지요.
"아무튼... 심청이 넌 어디서 온거야?"
"난 욕지마음에서 왔는데 뱃사람들한테 쌀 삼백석을 받고 인당수의 빠져져 있었어요."
"뭐? 뱃사람들 진짜 나쁘네! 넌 왜 따라 온거야?"
"난 일부러 쌀 삼백석을 얻으려고 인당수에 빠진거야."
"왜? 너 정말 바보, 아니 이상해, 도대체 왜?"
"우리 아버지가..."
"그래! 다 아버지가 문제야. 아버지들은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거야!"
"아, 아니... 우리 아버지가 눈이 안보이거든... 쌀 삼백석으로 눈을 뜰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너희 아버지가 날 팔고 쌀 삼백석을 얻어서

자기는 뜨려고 그런거야? 진짜 나쁘네!"
"아니 그게 아니고... 아버지 눈을 뜰 수 있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랬어."
바단은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바치려고 하니, 바단에게는 신기한 일이었죠.
"너희 아버지는 좋으신 것 같은데... 너한테 잘해 주시지?"
"아, 아니 뭐... 그저... 잘해주셔... 그런데... 기쁨은 좀..."
바단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깜짝 놀랐어요.
"바단이 너는 참 좋겠다. 아버지가 건강하셔서."
"어... 어? 그런데... 너,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돼. 나... 사실은... 아버지가 싫어."
"어? 왜? 너한테 잘해주시지 않아?"
"그런데... 나랑 있는 시간이 많고... 일에 바쁘시고... 너한테 좋은 물건만 주고 너한테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바단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렸어요.
심청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저, 그런데 바단이, 화내지 말고 들어 봐, 너희 아버지가 너가 싫은게 아니라... 내가 느낀건데... 네 말이 조금 거친 것 같고, 아버지를 막 대하니깐 그럴 수도 있어... 혹시 관찰하면 내가 효도하는 법 가르쳐 줄까? 그러면 아버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널 좋아하게 될 거야."
"그, 그게 좋아. 잘 부탁해!"
바단은 마냥 기뻐요. 사실 어머니도 없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거든요.
"그럼 첫 번째, 말투를 고쳐서 상냥하게 말해봐"
"누구한테?"
"아버지한테 말한다고 생각하고 말해봐."
"응... 아버지~ 뭐해?"
"어, 그렇게 그런데 너무 억지로는 하지마. 그리고 두 번째로는 높임말을 쓰는거야."
"어, 그러면... 아버지~ 뭐하세요?"
"그렇게 하면 돼. 계속 연습하다보면 익숙해 질거야."
"더 있어? 이것 말고는 더 없어?"
"그럼, 세 번째, 짤!"
"이, 이게 뭐야? 효도... 쿠폰?"
"응, '안마해드리기' '발 씻겨드리기' '소원들어 드리기' '뽀뽀해 드리기' 등등 있어."

"이건... 그래, 해볼게. 그런데 더 없어?"
"이건 중요한건데 네 번째는 아버지 말 잘 듣기야. 그 대신 모두 잘 들으면 안되고, 아닌 것 같으면 다섯째, 너의 의견을 말하되 다른 사람 의견도 존중해 주면 돼."
그렇게 심청이랑 바단은 효도연습을 했어요.
"심청아, 정말 고마워. 너 덕분에 나도 효도를 알게 되어 고마워."
"응, 바단이, 그런데 나 잠깐 나갔다 와도 돼?"
"그래 괜찮아."
심청이는 밖으로 나왔어요. 바단은 심청이가 너무 고마웠지요. 그런데 언 듯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바단은 밖으로 나가 보았지요.
"흑흑흑... 아버지... 흑흑... 눈을 뜨셨지요? 흑흑... 기뻐 되는데... 흑 흑 슬프지? 흑흑..."
"심청아, 왜 그래? 무슨 문제지?"
"그냥... 훌쩍,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훌쩍"
바단은 생각 했지요. 자신을 도와준 심청이랑 떨어지는 싫었지만, 뭔가 보답을 하고 싶었지요.
"심청아, 내가 아버지한테 부탁해서 널 욕지로 보내 줄게."
바단은 용왕에게 갔어요. 용왕은 바단이 무슨 짓을 할까 생각중이었는데 입이 딱 벌어졌어요.
"아버지, 저 할말이 있어요. 혹시 심청이를 욕지로 올려보낼 방법이 없을까요?"
"그, 하나있는데... 내가 연꽃으로 올려보내면 된단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가볼게요."
그리고 바단은 심청이를 이름다운 연꽃에 태우고 마지막 작별인사를 했어요. 그 뒤, 바단은 늘 심청이를 생각했어요. 그래도 외롭지는 않았어요.
바단의 성격이 고쳐지자 많은 사람들이 바단을 좋아하게 되었고 신랑이 되겠다는 청년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바단은 그중, 인당수를 잘 다스릴 만한 청년과 결혼하였고, 아버지께도 효도하며 아이도 낳았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심청이가 가르쳐준 효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대요. 그런데 바단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는데, 인당수에 폭풍이 불어서 심청이가 쌀 삼백석을 받고 인당수에 빠졌는데 그 인당수의 폭풍은 바다의 신이 만들어서 바단이 효도를 깨우치도록 도와준 누군가를 찾으려고 일부러 만들었대요.



문화재청 2021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체험 단체 및 개인 참가자 모집안내

곡성문화원에서는 문화재청 2021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일환으로 단체 및 개인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프로그램명 | 프로그램 개요 | 일시 | 장소 | 참가대상 및 인원 | 비고 |
|--|--|----------------------------|---------------------------|----------------------------|--------------------|
| 1 과거로 가서 과거(科擧) 보자 찾아가는 향교·서원VR | VR(가상현실)장비를 착용해 향교와 서원 등을 체험하고 과거시험을 보는 찾아가는 프로그램 | 2021년 4월 1일~ 11월 30일 | 학교, 공공기관, 마을회관 등 | 학생 및 일반인 등 500여명 | 사회적 약자 (일부 포함) |
| 2 향교·서원 워킹맨 의복을 갖추고 과거에 응시하라! | TV속 예능처럼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여 재미와 함께 교육효과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 | 2021년 4월 1일~ 11월 30일 | 곡성향교 | 학생, 지역민, 관광객 등 750여명 | 사회적 약자 (일부 포함) |
| 3 향교와 서원! 1박2일 선비체험 | 향교·서원에서 1박2일 동안 전통 문화를 배우고 익히도록 기획한 문화관광 지역 교류형 프로그램 | 2021년 4월 1일~ 11월 30일 | 곡성향교, 덕양서원, 오강사, 도동묘 등 | 사회적 약자 30여명 | 1박2일(무료) 사회적 약자 |
| 4 향교와 서원 문화예술가와의 만남 | 향교와 서원에서 문화예술가를 초청하여 주민들과 대화하고 교류하는 프로그램 | 2021년 4월 1일~ 11월 30일 | 곡성향교, 옥과향교, 덕양서원 | 지역주민 등 50여명 | |

참여 문의 곡성문화원 사무국 061-362-0890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 공인산업디자인전문회사

GAMDESIGN

감디자인

홈페이지 / 쇼핑몰 / 멀티미디어 / 산업디자인

TEL_062.228.2558
E-mail_gamdesign@hanmail.net

광주광역시 동구 지호로 106번길 4-5 시인의집 1층

행복탐험대

- 문화콘텐츠기획
- 영상제작
- 행사연출
- 체험학습
- 레크리에이션

010 +4606 +1815